

영웅 키우는 재미 짱 ‘자꾸 손이가네’

위메이드 ‘히어로스퀘어 for Kakao’

귀여운 캐릭터와 탄탄한 게임성 자랑
남녀노소 모두 몰입하게 만드는 재미

소셜+RPG 두가지 장르 적절히 결합
방대한 콘텐츠로 기존 게임과 차별화

남녀가 좋아하는 게임은 조금씩 다르다. 여성은 보통 캐주얼 한 게임을, 남성은 좀 더 무겁고 진중한 역할수행게임(RPG) 등에 매력을 느낀다. 하지만 그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최근 취향이 다른 남녀노소 모두 동시에 만족할 만한 모바일 게임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월드러너’ 등 인기 모바일 게임을 내놓은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새롭게 출시한 신작 ‘히어로스퀘어 for Kakao’다.

●쉽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히어로스퀘어 for Kakao’는 자신의 마을을 꾸미고, 귀여운 영웅을 성장시키면서, 박진감 넘치는 전투까지 펼칠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이다.

이 게임은 다른 모바일 게임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다. 먼저 쉽고 간편하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데다, 귀여운 캐릭터들까지 다수 등장해 여성 게이머들의 관심(心)을 자극한다.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만도 않다. 조금만 플레이 하다 보면 완성도 높은 게임성으로 중무장한 ‘정말 진지하게 만든 게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남자 게이머들에게도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처럼 누구나 쉽게 적응 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은 물론 탄탄한 게임성까지 갖춘 덕에 ‘히어로스퀘어 for Kakao’는 출시되자마자 애플 앱스토어 무료게임 순위 상위권에 오르는 등 유저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소셜과 역할수행의 재미 두루 갖춰

‘히어로스퀘어 for Kakao’의 장르는 ‘소셜역할수행게임’(SN-RPG)이다. 소셜과 역할수행의 재미를 고루 갖추고 있다.

이용자는 자신만의 마을인 ‘부유섬’에서 농장이나 광산, 생산·제작 건물을 지어 도움이 되는 재료를 생산할 수 있다. 또 각종 장식물을 동원해 마을을 자신의 취향에 맞춰 꾸밀 수도 있다.

일반 소셜네트워크게임(SNG)장르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역할수행게임(RPG)의 핵심인 ‘성장’을 마을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용자는 마을에 각각의 영웅 생산 건물을 구축하고, 이곳에서 영웅을 훈련시켜 전투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또 각종 도움 건물을 통해 아이템을 제작하고 보다 강한 영웅을 키워낼 수 있다.



완성도 높은 게임 콘텐츠를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신작 스마트폰 게임 ‘히어로스퀘어 for Kakao’의 대표 이미지.

이렇게 성장시킨 영웅을 바탕으로 ‘탐험 맵’을 누비며 다양한 괴물들과의 전투를 통해 자신의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고, 각종 재료도 얻을 수 있다.

마을을 꾸미고 영웅을 성장시키는 것은 물론, 전투를 통해 괴물을 무찌르는 등 다양한 장르의 재미를 한번에 만끽할 수 있는 게임이 바로 ‘히어로스퀘어 for Kakao’인 것이다.

●초심자·마니아 모두 만족

편의성도 뛰어나다. ‘자동 진행 시스템’을 적용해 이용자가 자신의 취향에 따른 마을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탐험 맵 전체를 자동 진행하거나, 각각의 개별 전투만을 자동 진행 할 수 있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 최적화된 사용자 환경(UI)과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이야기 퀘스트를 통해 초심자들도 자연스럽게 게임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온라인 게임에 버금가는 풍부한 영웅 캐릭터와 방대한 콘텐츠는 게임 마니아들에게도 기존 모바일 게임과는 차원이 다른 ‘재미’를 준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뮤지컬 ‘스칼렛 펄퍼널’은 프랑스혁명을 다루고 있지만 영웅과 사랑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즐겁고 경쾌하다. 주인공 ‘퍼시’ 역은 박건형·박광현·한지상이 맡아 매력을 저울질하기 힘든 3인3색 연기를 펼친다. 사진제공 CJ E&M

쾌걸 조로보다 더 유쾌한 ‘이중생활’ 영웅의 원조

양형모의 아이 러브 스테이지

뮤지컬 ‘스칼렛 펄퍼널’

프랑스 혁명 주제 가볍고 경쾌하게 해석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 음악 ‘명불허전’
3인 3색 ‘퍼시’ 연기…어떤 배우를 볼까?

뮤지컬 ‘스칼렛 펄퍼널’을 보기 위해 공연장에 들어서면서도 마음 한 구석은 솔직히 시큰둥했다. ‘레미제라블’, ‘두 도시 이야기’를 이미 관람한 터라 “또 프랑스혁명이야?” 싶었다. ‘스칼렛 펄퍼널’은 영국의 한량 귀족 퍼시가 친구들과 함께 비밀결사대를 조직해 프랑스 혁명 후 공포정치가 떨고 있는 프랑스 시민들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비밀결사대의 이름은 ‘더 리그’. 주된 활동은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인 무고한 희생자를 구출하는 것이다.

●‘이중생활 영웅’의 원조 ‘스칼렛 펄퍼널’

하지만 공연 전의 ‘시큰둥함’이 ‘와아! 재밌어’로 바뀌는 데에는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프랑스 혁명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지닌, 숨이 턱턱 막히는 무거움의 자리를 숨털처럼 가볍고 경쾌함이 대신했다. ‘레미제라블’과 ‘두 도시 이야기’가 자유와 평화, 정의를 위한 ‘행군’이라면, ‘스칼렛 펄퍼널’은 ‘댄스’를 추며 전진하는 느낌이었다.

‘스칼렛 펄퍼널’은 ‘아이언맨’보다 위트있고, ‘배트맨’보다 세시하고, ‘스파이더맨’보다 로맨틱한 영웅의 이야기’를 다룬다. 영웅 ‘퍼시’는 낮에는 화려한 영국의 귀족, 밤에는 프랑스 공포정권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구출하는 비밀결사대의 수장이라는 이중생활을 한다.

배트맨, 스파이더맨, 슈퍼맨, 조로와 같은 ‘이중생활 영웅’ 캐릭터들의 원조가 ‘스칼렛 펄퍼널’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영국의 작가 바로네스 오르치의 동명의 소설이 원작으로 우리나라에는 ‘빨강 별꽃’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됐다.

왜 ‘스칼렛 펄퍼널’인가 하면 퍼시 결사대가 사람을 구출할 때마다 별 모양의 빨간 꽃(스칼

●양기자의 내 맘대로 평점

감독 ★★★	마지막의 대반전이 통쾌하기 짝이 없다
웃음 ★★★	낮 동안의 퍼시와 친구들은 영동함을 넘어 엽기적이기까지
음악 ★★★	넘버 하나 하나가 팝음악처럼 ‘귀염깸’이 부드럽다
무대 ★★★	훈남들의 화려한 궁정 패션쇼와 대형 뱃터무대는 잊혀지지 않는다

렛 펄퍼널)이 새겨진 노트를 현장에 남기기 때문이다

●넘버들은 결혼축가·해병대 홍보송으로 활용되기도

‘지킬앤하이드’, ‘몬테크리스토’의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의 음악은 명불허전이다. ‘스칼렛 펄퍼널’의 넘버(뮤지컬 노래)들이 무대 밖에서도 크게 사랑받았다는 점도 재밌다. 퍼시와 연인 마그리트가 부르는 ‘유 아 마이 홈’(You are my home)은 1990년대 대중음악계에서 TOP 40에 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결혼식 축가로도 애용되는 익숙한 곡이다.

“다 함께 불길 속으로 뛰어들자”는 ‘스칼렛 펄퍼널’의 주제가 ‘인투 더 파이어’(into the fire)는 미국 해병대의 홍보용 곡으로 사용됐다.

‘스칼렛 펄퍼널’은 볼거리가 들을거리에 풀리지 않는 작품이다. 귀족문화의 상징이자 18세기 유럽을 휩쓴 로코코양식의 우아한 귀족패션쇼장에 앉아 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인 영국 궁정의 가면무도회 장면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린다. 남자관객이라면 무대 위 훈남들의 화려한 패션쇼에 눈을 떼지 못하는 여자친구의 열모습을 보며 ‘보람 반 질투 반’의 감정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다.

박건형·박광현·한지상이 3인 3색의 퍼시를 연기한다. 연인 마그리트는 김선영과 바다가 맡았다. 배우들의 캐릭터 해석과 연기·노래 컬러가 워낙 달라 ‘어느 조합으로 봐야 하나’하는 즐거운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이 이 작품의 유일한 단점이다.

양형모 기자 ranbi361@donga.com 트위터 @ranbi361



CJ레이스 4전 테마 ‘나이트레이스 위드 록’

CJ헬로비전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4전이 8월3일 강원도 태백레이싱파크에서 개최된다. 이번 4전의 테마는 ‘나이트레이스 위드 록(사진)’이다. 지난해 처음 시도돼 열렬한 관심과 호응을 얻었던 ‘나이트레이스 위드 록’은 올해 더욱 ‘핫’한 이벤트들로 준비됐다. 강력한 록 사운드를 자랑하는 ‘브로큰 발렌타인’, 동갑내기 4인조그룹으로 2000년 결성되어 KBS 탑 밴드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열렬한 호응을 얻은 관록의 그룹 ‘트랜스픽션’, 최고의 악동그룹이라고 불리는 ‘슈퍼키드’, 강렬한 라이브를 자랑하는 ‘포스트 패닉’ 등이 출전해 레이스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해변가 스타벅스 매장 사진 공모전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이석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변가 스타벅스 매장을 주제로 하는 ‘스타벅스, 바다를 만나다’ 고해 사진 공모전을 20일~8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응모 방법은 강릉, 속초, 부산, 제주 등 전국 6개 도시의 해변가에 위치한 12개 스타벅스 매장을 배경으로 해변 및 바깥쪽 추억을 담은 장축 2000픽셀 이상의 풍경 사진을 제목과 함께 이메일(coffeetogo@istarbucks.co.kr)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들에게는 스타벅스 충전 카드와 텀블러 비아 등이 증정된다.

파리바게트 ‘소피아농아인올림픽’ 후원

(파리바게트(대표이사 정태수)의 대표 브랜드 파리바게트가 17일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2013 소피아농아인올림픽’ 후원식을 가졌다. 파리바게트는 지난 6월 24일부터 선수단에 매일 100인분씩의 빵과 음료를 후원해왔으며, 후원은 국내에서의 훈련이 마무리되는 오는 19일까지 계속된다. 26일~8월 4일까지 열리는 ‘2013 소피아농아인올림픽대회’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며, 우리나라에서는 총 115명의 선수 및 지원단이 참가한다.

한돈자조금도 농아인올림픽 선수단 후원

국산 돼지고기 ‘한돈’의 소비촉진단체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가 18일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2013 소피아 농아인올림픽 국가대표 한돈 후원식(사진)’을 열고 후원금과 한돈 donuts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식은 26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농아인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경기력 향상에 일조하고자 마련됐다. 후원식에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병모 위원장, 소피아 농아인올림픽대회 이상용 총감독, 탁구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11년 6월부터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한돈 donuts, 후원금, 문화 시설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다.

CJ제일제당 ‘톡톡 주부평가단’ 모집

CJ제일제당은 8월 30일까지 신제품을 먼저 평가하고 제품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톡톡(Talk Talk) 주부 평가단’을 모집한다. ‘톡톡 주부 평가단’은 요리에 관심이 많고 조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및 감각을 지닌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5~49세 주부 중에서 월 1회 정기모임 참석은 기본이고 6~12개월 이상 활동이 가능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CJ제일제당 패밀리 클럽 홈페이지(www.cjfamily.com)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9월 6일 금요일 패밀리 클럽 게시판에 공지하거나 개별 이메일이 발송된다.

코오롱 필름프로젝트 ‘판타스틱 영화제’ 상영

코오롱스포츠의 필름프로젝트 ‘정출여람(사진)’과 ‘사랑의 가위바위보’가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17회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특별전에도 초대돼 상영된다. 코오롱스포츠의 ‘Way to Nature Film Project’는 코오롱스포츠가 브랜드 론칭 40주년을 맞아 유명 영화감독들과 함께 한 영화 프로젝트이다. 첫 번째 영화인 ‘정출여람(Day Trip)’은 박찬욱·박찬경 감독의 작품으로 고집불통 스승(송강호)과 철부지 소녀(전효정) 제자가 득음 연습을 위해 초겨울 산을 오르고, 스승의 가르침에 조금씩 제 실력을 보여주던 소녀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려내고 있다.

컬처박스

평생직업 선택 돕는 ‘바이بل’

●정년 없는 프로페셔널(김현정 지음 | 중앙m&b)

가늘고 길게 살 것인가, 굵고 짧게 살 것인가. 인생의 문제라면 고민할 수 있겠지만 직장생활의 경우라면 많은 사람의 대답은 일지할 것이다. 국내 100대 기업의 직원 근속연수는 평균 11.5년. 매년 45만명이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떠난다. 모두가 선택하는 대기업에 힘들게 들어간 이들이 왜 사표를 던질까. 평생직장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인사 시즌만 되면 조마조마 하는 직장인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그게 그거다. 종착역으로 가는 열차에서 살아남는 현명한 방법은 열차를 갈아타는 것. 여기 첫 직장에서 1막을 접고 인생 2막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 정년 없이 길고 오래가는 직업을 선택한 19인이 직업과 나이를 떠나 평생 멋있고 즐겁게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 준비하지 않은 퇴직은 잔인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두 번째 직업을 디자인해 보자.

소와 인간의 삶 그린 장편소설

●소(김용원 지음 | 동인)

소,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한 동물. 살아서는 우직하게 주인에게 순종하며 온몸으로 힘들고 어려운 농사일을 도맡아 하는 반려자. 죽어서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두 바친다.

오죽했으면 생구(生口)라고 했을까. ‘소’에 대한 이야기가 장편소설로 다시 태어났다. 작가는 우직하게 소처럼 끈기 있게 살아온 우리 민족을 소에 빗대어 줄거리를 풀어간다. 역백이와 간난네, 그들의 자식인 재덕과 재돌이가 ‘비마골’에서 가난고 고통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을 잔잔하게 그렸다. 소를 소재로 한반도를 촘촘하게 적셨던 독립영화 ‘워낭소리’가 오버랩 된다. 작가는 소설가이자 아동문학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MBC문학상을 수상한 문단의 중견이다. 소설 ‘소’는 신화적 상상과 시대적 인간사의 사잇길에서 조선 민초들의 삶을 잔잔하고 그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연재호 기자 sol@donga.com

편집 | 김대권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